

논문접수일 : 2012.03.20 심사일 : 2012.04.05 게재확정일 : 2012.04.26

청화도자 표상으로서의 플로럴 패턴이 지닌 외연과 내포

The Symbol and Formative Emblem of Denotation and Connotation in
Floral Pattern Blue and White porcelains

주저자 : 김연화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Kim, Youn-Hwa

Hongik Univ.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Art

교신저자 : 한석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Han, Seok-Woo

Seoul National Univ. of Science & Technology

1. 서론

- 1-1. 연구 목적 및 범위
- 1-2. 연구 절차 및 방법

2. 플로럴 패턴(Floral Pattern)의 미적형식과 조형적 특성

- 2-1. 미적형식으로서의 패턴과 장식
- 2-2. 모티프(motif)로서의 플라워(flower)가 지닌 상징성

3. 국내외 청화도자에 나타난 조형표상

- 3-1. 조형표상의 개념 설정
- 3-2.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비교 분석
- 3-3. 유럽도자분석
- 3-4. 표상으로서의 외연과 내포

4.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조형작품이 지닌 미적 형식의 미학적 기본 개념은 사물의 본질, 존재에 대한 형상적 요소와 조형특성으로서의 표상 또는 형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재현적, 모방적, 객관적인 형식과 비재현성의 추상적 형식으로 대별되며 그 형식의 표현들은 패턴, 장식, 주제, 이미지를 지닌다.

미적형식과 조형요소로서의 플로럴 패턴이 지닌 장식미는 구조적, 심미적 가치와 함께 도자작품이 지니는 사물의 본질성, 표현성에 기인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념과 본질을 구성하는 조형가치를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3세기-17세기에 전성기를 이루는 한,중,일, 베트남 도자의 청화도자기장식패턴에는 자연주의와 젠(zen)부디즘, 도교(taoism), 생활양식 및 전통적인 민간사상의 기원 메시지가 구현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도자조형의 플로럴 패턴과 장식미는 회화적 구성요소로서의 미적 가치 측정 도구로서의 변별성을 지니게 된다.

청화도자에 나타난 조형표상으로서의 플로럴 패턴이 지닌 외연과 내포에는 집합조건과 필연성질에 의한 내용미학과 형식미학이 통섭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곧 플로럴패턴의 존재론적 의미가 함축됨과 함께 현상학적 구조가 조형표현으로 표출되는 미적양상으로서 상호 연계된 형식적인 제 조건을 의미

한다.

연구의 주요 발견점은, 플로럴 모티프가 지닌 미적형식들에는 철학적 미학과 존재론적 상태가 함축되어있고, 국가적,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시각적 조형요소와 구조적 조형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플로럴 패턴, 모티프, 외연과 내포

Abstract

Aesthetic fundamental concept of aesthetic form which formative works have is to understand symbol and form of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shape elements on nature and existence of objects. It can be classified into reproducing, imitating, and objective form and non-reproducing abstract form and the expression of the form has pattern, decoration, theme, and image.

Since decorating beauty which floral pattern has as aesthetic form and formative elements, with the structural and aesthetic values, comes from nature and expression of objects which craft works have, the study has basic purpose to evidence expression comprising concept and nature.

In Floral pattern of Korean, Chinese, Japanese, and Vietnamese ceramics having glory days in the 13th-17th, wishing messages of naturalism, Zen Buddhism, Taoism, life style and traditional folk thought were realized to appear. Therefore, pattern and decorating beauty appeared in craft works have discrimination as aesthetic value measuring instrument of pictorial component.

In intention and comprehension which floral pattern of formative symbol appeared in blue and white porcelains has, content aesthetics and formal aesthetics by set condition and necessity nature set up consilience relations. It means, along with implication of ontological meaning, mutual connecting formal condition as aesthetic aspect that phenomenological structure is expressed as formative expression.

The main discovery point of the study confirmed that aesthetic form of floral motive implied philosophical aesthetics and ontological state and had visual formative elements and structural value differentiated by characteristics of nation and region.

Keyword

floral Pattern, motif, Denotation and Connotation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범위

본 연구는 도자조형의 패턴이 작가에 의한 의식적인 미의 창조활동이고 노력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목표를 추구하게 되는 조형적 전개의 미적형식과 조형 가치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자연에서 출발된 플로럴(Floral) 표현이 미적대상에 대한 존재론적 상태와 현상학적 구조로서 형식적 조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청화도자 조형표현물은 미적체험으로서의 외연(denotation)과 내포(connotation)의 상호조응이 표현된 과정이며 매체 속에 요구되는 구조적 조형요소들을 새롭게 결집시킨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개념의 내적상태와 정신적 구성요소를 주제, 내용, 소재물질을 통해 형체이미지와 패턴장식과 같은 시각적 외적요소로 표현(expression)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목적은 시각적 구성요소로서 플로럴 모티프(motif)가 지닌 기예적, 심미적 가치와 함께 사물의 목적성, 적합성에 기인하는 조형표상이 지닌 내용과 형식 즉, 의미요소와 외적요소를 탐색하는 데 있다.

연구범위는 한국과 중국, 베트남, 일본, 유럽의 15세기에서 18세기 사이의 청화 도자를 선정 기준으로 하였으며 15권의 동서양의 문헌에서 추출된 대표작품 71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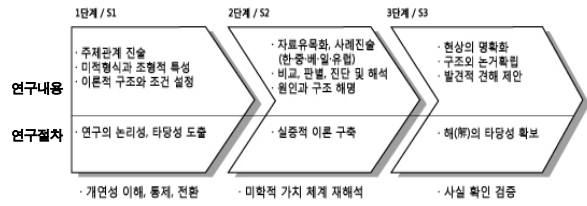
- 미적형식과 형상적 특성 및 상징성을 형태학적으로 분석
- 동서양의 플로럴 패턴이 지닌 형식과 구조의 재해석
- 조형표상과 미적양태로서의 외연과 내포
- 유형별, 특성별 표현 언어와 형상적 특성

1-2. 연구 절차 및 방법

연구절차는 1단계로 플로럴 패턴의 미적형식과 조형적 특성을 조망하고, 이에 따른 이론적 구조와 조건을 설정, 콘텐츠(contents)별 특성과 상징성에 대한 방법을 설정 하였다.

2단계에서는 국내외 71점의 자료를 유목화하여 현상적 문제의 논의와 기준 및 상관 조형성의 상호관련성을 비교판별을 통해 실증적 체계를 진술을 하였으며, 3단계는 논증을 통해 나타난 사실을 확인하고 현

상의 명확화와 해(解)의 문제구조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림 1] 연구 내용 및 절차

2. 플로럴 패턴(Floral Pattern)의 미적형식과 조형적 특성

2-1. 미적형식으로서의 패턴과 장식

미적인 대상을 구성하는 형식적 조건인 미의 형식 원리는 그 대상이 지니고 있는 구조나 부분간의 상호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미적 대상이란 도자조형의 존재양식을 의미하며 이는 작품이 지닌 현상학적 구조의 측면과 존재론적인 작품 그 자체를 지칭한다. 즉, 도자 조형의 구조나 부분의 문제를 존재론적인 상태, 양태(modification)로 볼 때 실제적인 작품에 나타난 패턴과 장식 구조를 중심으로 상호 조응(照應)의 관계로 분석, 고찰하여야 한다.

이것은 도자조형이 지니고 있는 미적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범주로 미학적인 가치내용이 내재되어있으며 기본미를 속성범주와 개념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을 뜻한다.

본고에서 다루게 된 미적형식은 사물의 본질 즉, 연구 대상의 개념적 본질과 존재에 대한 형상적 요소인 조형특성으로서의 영역 또는 윤곽(contour)을 의미한다. 이것은 작품의 내용(contents), 소재(matter), 정신적인 구성요소(element)와 주제, 제재(subject matter)와 같은 내적요소들과 외연(connotation)으로서의 의미(meaning)와 함께 외적 요소인 형체, 형세, 상황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것의 형식에는 재현적, 모방적, 객관적인 구상적 형식과 비재현성의 추상적 형식으로 대별된다.

18세기 폴란드 출신의 철학자이며 미학자인 타타르키비츠(Wladyslaw TaTarkiewicz: 1888-1918)는 그의 저서 「A History of Six Ideas」에서, 같은 형식의 표현은 패턴, 장식, 형, 이미지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도자조형물에 나타난 패턴과 장식미(decoration)는 시각적 구성요소로서 심미적

가치를 측정할 도구로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플로럴(Floral) 주제의 도자 작품은 계획된 제작과정과 세밀하고 미려한 미학요소를 표현하여야 하는 장식성을 추구하며 기능적 효과로서 장식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어야하므로 그 장식성은 작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회화적 조형특성을 지니거나 수공예적 요소를 시각적 긴장감이 있는 조화틀로서 승화시켜야 한다.

국명 특성	한국	중국	베트남	일본	유럽
도자유형	병(호병, 매병, 각병), 완, 외(편외), 제기, 필통, 연적, 접시(磁), 대접(鉢)	천구(天球)형, 편호, 집호(주전자), 제갈호(참외 항), 보주(꽃봉오리 항)	항아리, 함, 타일, 주전자(pot), 램프스탠드 (lampstand), 화기 (flowering plum), 대 접 (dish, bowl), 촛대 (candleholder) , 과일접시, 자루컵	다완, 찾주전자, 접시/대접, 항아리, 병, 화식기류	꽃병, 물병류, 주전자, 촛대, 인형
도자법	백자청화 분청진사청화	유하채기 (釉下彩器)	흙색도자 (brown patterned ceramics), 청화삼강장식	색화장식 도자	마요리카 장식기법 (Majolica)

[표 1] 국내의 청화도자 특성별 유형과 기법 비교

도자작품 속에서의 미적형식이란 미와 예술의 본질을 직접적, 구상성(具象性)에서 파악하려는 형상적으로 표현된 것에 대한 실제의 감정 즉 미의식과 대상을 전체성과 직관성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미적 감각의 성립 조건과 기능인 보편적인 미적 감각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철학적 미학에서의 미적 체험은 미적관조보다는 미적의식으로 규정되므로 조형예술 으로서의 미적 대상인 도자조형의 존재양식인 플로럴 패턴이 지닌 현상학적 구조의 측면에서 존재론적인 형식의 측면인 형식 미학과 조형표상으로서의 모티프(motif)가 지닌 내용미학 즉, 미의양태를 범주로 하였다.

2-2. 모티프(motif)로서의 플라워(flower)가 지닌 상징성

조형작품의 모티프는 형식과 개념에 의해 구성되는 상징과 표상이며 현상적 의미를 지닌 표현적 행동의 의식적 활동이다.

즉, 조형에 나타난 자연적인 모티프는 일정불변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대립하는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변화하므로 그 형태는 상대적 상호작용과 통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물체와 현상이 생긴다. 그러므로 조형형식과 구조의 외형적 양식으로 재현된 의미로서의 모티프는 상징과 표상이며 현상적 의미를 지닌 표현적 행동의 의식적 활동이다. 조형의 모티프는 상상으로부터 잉태되어 결과로써 산출되는 최종 조형 작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포용하는 것으로서 형상적으로는 다양한 양식과 패턴으로 구별되는 차별성을 지니게 된다.

결국 그 형태는 현실적인 형태의 순수형(pure form)으로서의 재현적인 요소를 갖는다. 그러므로 각각의 작품에는 유사한 은유적 현상이 나타나므로 이것이 지닌 이념과 조형형의 규범은 일정한 양식을 지닌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상의 재현적인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구상형태의 정체성에 대한 개념적 재현의 미적 가치 체계의 규범으로 확인될 수 있고 그 특성은 부정형적, 역동적, 유기적, 객체적, 상대적인 형식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연적 모티프의 상징성은 결코 우연적이지 않은 직유적인 조형특성을 갖게 된다.

수세기 동안 중국풍의 모티프들은 서양인의 상상력을 자극해왔다. 예컨대, 동양의 도가적, 유가적, 사면적인 사유 등, 이국적인 물품이 지닌 정교함은 시누아즈리라는 중국적인 것의 사유(thinking)와 유형(style), 일상적 물건, 양식, 이야기, 예법, 사상 등을 광범위하게 포용하는 다변적, 다의적 특성을 낳게 된 것이다.

이국적인 사고나 사항, 이야기(story telling)와 콘텐츠들은 유럽인에게 중국과 인도인들의 기질과 생활상을 상상하는데 신비스러움을 더하게 하였다. 자연적인 모티프의 조형적 상징성은 가시적으로 재현된 존재로써 구체적인 형상에 대한 암시와 내재된 묘사, 증거, 의미가 된다. 이와 같은 상징은 외관 속에 이미 지로서 성립하는 관념적 대상이며, 지시 대상에 대한 의미이고, 유사하게 상용하는 일종의 개념이다. 대상의 원형이 구축됨이 없이 상투적으로 만들어지는 광의의 추상형태이다.

그러므로 감정적 의미 또는 의미로서의 간접적 표시, 상징, 지시 또는 감각적인 형상으로 구현되는 은유성을 함께 지닌다.

- 대상을 일반적, 객관적으로 파악 개념을 정식화하는 인지작용과 관계
- 상징은 유사한 개개의 사물을 하나의 공통이미지로 추상하여 총괄 할 때 유사성을 갖는

그 흐름의 일반적 이름

- 상징은 간접적으로 대상에 대한 개념을 표시
- 상징은 문화창조의 관건, 언어, 예술임
- 객관화 되어있는 패턴으로서의 논리구조를 생명
으로함.

위와 같이, 상징은 지시대상에 대한 표시, 표현과 같은 논리적 맥락에서의 보편적 수단으로 무의식적인 소구력과 함께 형태의 명확성을 지닌 어떤 대상으로 구체화 한 것이다. 그러므로 플로럴 패턴의 상징성에 대한 해석은 가시적으로 응축된 존재에 대한 특징을 현시적(presentational)으로 체득하는 은유적 속성과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3. 국내의 청화도자에 나타나는 조형표상

3-1. 조형표상의 개념 설정

플로럴 청화 도자에 나타난 조형표상이란 여러 가지 조형 요소를 사용하여 형체를 만드는 것을 뜻하는 질서이며 구성이고 형태에 대한 형식과 작업을 의미한다. 창조적 조형 표상을 형성하는 구조학으로서의 조형 예술은 새로운 시각형식에 대한 가능성의 탐구이므로 형식적 특성의 모티프가 대두된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표상은 조형대상이 지니고 있는 공간의 제 2교소와 함께 구성과 구조의 직유(Simile), 은유(Metaphor) 및 환유(Metonymy)의 관계로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가에 대한 존재의 양식에서부터 기인된다. 그러므로 조형 표상은 그 대상에 대하여 전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질서를 형성함으로써 통일, 통합되어지는 체계와 관계되는 대상의 물체가 지닌 이념적, 실체적 본질에 대한 시각적 지각대상의 외형적 양식과 태도, 윤곽, 상징적 특성등을 직관적 형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형 표상은 조형 창작의 근본작업으로 작가의 감정이 표출, 산출 된 것으로 새로운 시각 형식에 대한 가능성의 탐구이며, 지각되는 형상으로 인지시켜주게 된다. 예술적 표상, 감각적인 자연물이 존재형식에 대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생명체로서의 존재가치와 욕구에 대한 의사소통의 언어를 산출하게 되고 정신과 물질에 형식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연현상으로서의 플로럴 형상미에 대한 형태적 특성인 자연미는 아름다운 대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아이디어의 패

턴과 규범, 구조, 형상적 법칙 등이 존재한다.

조형물에 대하여 전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질서는 통합되어 있는 전체로서의 형상과 형태의 물(物)적 동적 대상이 함축하고 있는 실체적인 속성을 나타냄으로 청화도자에서 복합적이며 다변적인(versatile) 표현과 형식으로 구현되고 있다.

3-2.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비교 분석

- 한국의 조형표상

한국의 청화도자기는 가르침을 시대사상면에서 근간으로 유지하고 있는 민간사상(壽祈願 思想)과 같은 종교적, 시대적 배경(scene)과 관계가 깊다. 불교가 국교인 고려시대에는 청자상감기법에 의한

세종 시대	유형별 형태	시대, 패턴장식 및 특성
12세기 19세기		①12세기/고려 청자 모란 무늬 항아리 ②12세기 연화 청화와 철유상감기법에이용* 철유상감기 - 청자 태토로 그릇을 만든 다음 문양이나 문양의 배경에 백토를 상감하고나머지 태토면에 빛으로 철유를 칠하는 법
		
		③15세기~16세기 백자청화 세대나무무늬항아리 ④18세기 백자 청화 그림용 무늬 항아리 용준이라 부르는 용무늬 항아리의 항아리에 연화일 표현
		
		⑤ 18세기 대화 백자대화문호
		⑥ 18세기 들국화(초화문) 백자청화추초문호
		⑦ 18세기 후반 도리지궤(추초문) 백자청화추초문호
		
		⑨ 19세기 후반 연화+나비 백자청화연화 연문심발
		
		⑧ 19세기 대화 백자청화추초문호
		⑩ 19세기 국화 백자청화진사이 화문

[표 2]한국도자의 플로럴 패턴

(출처 : 長谷部樂彌, 世界のやぎもの史, 2006. 임익규, 조선조 도자문양 의회학적 특성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2. .
한석우, 강승기, 예술문화체화 디자인 현현을 매화(문)의 상징성과 조형적 표상, 한국화에디자인학회 논문집 22권, 2010,
장경희, 국립중앙박물관, 예맥, 2007)

백색의 플로럴 패턴이 등장되고 조선조시대에는 유교의 윤리관과 가치관이 음양의 논리로 표현되어 검소, 질박, 담백한 분위기가 명확한 구조로 미의 방향을 제

시하게 된다.

순백의 도자기 표면에 코발트계의 청색 안료로 장식계의 유약을 씌운 청화백자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17세기 - 18세기는 그 재료가 매우 귀하었으므로 중국의 전성기(13세기 후반 - 17세기 초)후반기에 등장된다. 특히 자연문은 그 의미를 상징하는 실연성(實演性)과 사의성(寫意性)이 강하게 나타나는 자연형상적인 양식이므로 조형예술의 패턴으로 표현되고 있다.

한국인의 미의식의 본바탕을 이루는 미감은 당 시대의 잠재적 미의식과 관습 및 사고가 표출되기 마련이므로 실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조선조인의 조형적 가치는 예술의 형식으로 함축성 있는 의미와 변화를 관조할 수 있다. 민간신앙인 장수기원, 벽사의 기원문양과 함께, 도교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천도나 십장생문양과 달리 자연관이 복합적으로 등장한 정신적 배경이 조형의 가치이념으로 상징성을 갖고, 조선조 중기 이후 중국 원, 명시대의 남조 영향아래 사군자의 화법이 청화자기에도 등장되어 국화, 매화와 같은 주제가 발견된다. 조선조 도자문양의 회화적 특성을 연구한 엄익규는 청화도자의 초화문중에서 5개의 플로럴 패턴명을 제시 한바 있다.(표1 참고)



[그림 2] 한국 청화도자의 플로럴 패턴 명칭

(출처 : 엄익규, 조선조 도자문양의 회화적 특성 연구, 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1982.)

19세기 백자청화사군자문각병에 나타난 매화는 사군자 중에서도 으뜸으로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조형대상으로 예로부터 삼국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모티프 이다. 시대적 변천과 관계없이 매화는 한·중·일에서 범용적으로 지금까지도 칭송받고 있는 꽃으로 절개와 의지를 지닌 품성으로 청정, 지조의 이미지로 탈속한 미감을 지니며 고아의 상징성을 지니므로 한국과 중국의 경우처럼 유교적 경천사상과 윤리 및 가치관이 해학으로 내재되어 표현되었다.

- 중국의 조형표상

원 시대부터 시작된 중국의 청화 도자는 실용적 공리적인 유교사상과 내재적 정신적인 도가의 사상 및 사머니즘적 정체성과 대중성이 내재되어 있는 동양의 사상이 직접적으로 조형표현의 모티프로 표출되

었다. 차이나(China, 중국, 支那)는 기원전 12세기 초

내용 시대	유형별 형태	시대, 패턴장식 및 특성
13세기 19세기 연화	 ①	① 원시대 청화원양회수문옥호춘병
	 ②	
	 ③	③ 명시대 청화쌍지화채문쌍계개관
	 ④	
	 ⑤	⑤ 청시대 청화투채화채합
	 ⑥	
13세기 19세기 목단	 ⑦	⑦ 청시대 청화분채편호
	 ⑧	⑧ 14세기 명시대 엄부주감목단당초문발
	 ⑨	
14세기 19세기 혼합형	 ⑩	⑩ 명시대 청화송죽매문매병
	 ⑪	
	 ⑫	⑫ 16세기~18세기백자자연꽃넝쿨무늬수키와

[표 3] 중국도자의 플로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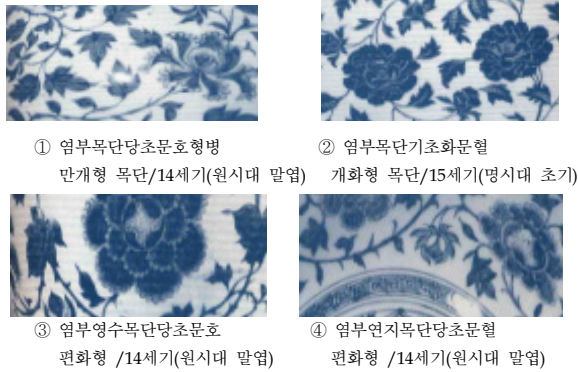
(출처 : 다나가 고히로, 가나다 아키오, 陶器器染付 文様事典, 栢書房, 1989, 이용욱, 중국명, 청시대 청화자기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장경희, 국립중앙박물관, 예맥, 2007.)

은(殷)나라부터 동북아시아의 가장 큰 나라이다. 역사적으로 동북아시아는 물론 서유럽의 지정학적 특성에 의해 수세기 동안 문화적으로도 독자적인 교류를 통해 차이나리즘 즉, 중국풍(Chinoiserie)에 대한 영향을 만들어 내었다.

서유럽의 문예부흥기에 해당되는 14세기-16세기 세기는 중국의 명, 청시대에 해당된다. 이러한 시기에 나타난 청화도자는 그 표현 양식이 형이상학적, 형이하학적인 이념으로 일정한 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모티프로 패턴을 창조, 발전 시켰다.

플로럴 패턴은 티벳 라마교회에서 전래된 팔괘와 과일류 및 인물, 산수와 함께 구성되어 있고 표현된 도자기의 형태도 일반적인 호병과 매병 류가 아닌 천구병, 편호형의 술병류, 꽃봉오리형태 손잡이의 보주(寶珠)형, 천구(天球)가 있는 중국적인 문화의 상징적

인 형상으로 표현된다. 플로럴 패턴의 경우에도 화과(花果), 초엽(蕉葉), 화판(花瓣) 형태를 지니고 있다. 단위형이 아닌 혼합형의 패턴을 즐겨 표현하였는데 이는 [표3]과 같다.



[그림 3] 중국도자의 목단(Peony) 패턴유형 변화

중국인이 즐겨 사용한 목단의 경우 송시대에는 청려하고 감각적인 표현과 사실화에 근거로 하는 만개형의 목단 패턴이 등장되며 그 후 원시대에 이르러 복잡한 화형(花形) 형식으로 변형되고 15세기 명 초기에는 개화형의 목단이 단순화된 줄기와 함께 여백의 공간으로 편화되고 있다.[그림3 참고]

특히, 중국의 청화도자는 차이니즘과 시누아즈리(Chinoiserie)의 유형 양식으로 시누아즈리풍(유형, 양식)의 조형형식이다. 경우에 따라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인도풍, 일본풍(Japonism)의 일부 예술적 표현, 형성, 방식의 유형적 분화에 관해 기술개념과 가치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분류적으로는 중국적인 조형형성 가능성에 본질적 근거를 두는 동인을 제공하게 된다. 17세기중반에 이르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과 덴마크, 이태리 등을 포함하는 재현된 조형 양식으로서의 시누아즈리풍의 예술 체험의 근본구조는 이것이 지닌 조형 특성 및 미적형식으로 동양적인 사유와 정서 및 정신적 조형 창조 활동에 기인한다.

- 일본의 조형표상

일본의 청화도자가 유입된 시기는 1910년대 즉, 17세기 초 조선조시대의 도공이 유입되고 17세기 중반 중국의 기술도 점차 유입되기 시작하는 강호 시대 말기부터 메이지시대초기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황윤, 김준성은 중국 청화자기에서 일본 도자기의 발전이 가마쿠라와 무로마치시기에 중국 도자기의 도자기들은 찻잔, 향아리, 접시 등 다양했는데, 중국 청자를 모방한 형태가 많았다고 기술하고 있다.(황윤, 김준

성, 중국 청화자기, 생각의 나무, 2010, p 222)

내용 시대	유형별 형태	시대, 패턴장식 및 특성
16세기 - 17세기	①	① 16세기 중 무자(하데시꼬) ② 17세기 초기 매화
	②	
	③	③ 17세기 초기 매화 ④ 17세기 후반 난초
	④	
	⑤	⑤ 17세기 후반 국화 ⑥ 17세기 후반 목단+당초
	⑥	
18세기 - 20세기	⑦	⑦ 17세기 후반 대나무+매화 ⑧ 18세기(강호시대) 목단+나비 색화자기
	⑧	
	⑨	⑨ 20세기 매화+목단 ⑩ 19세기 송+죽+매화
	⑩	
	⑪	⑪ 19세기 초화혼합형 [표3]한국의 백자청화연화의 영향을 받음.

[표 4] 일본도자의 플로럴 패턴

(출처 : seigensha 陶磁文化館, 古伊万里入門, 青幻舎, 2007., 失部浪明 日本のやぎもの史, 美術出版社, 2007.やぎもの事典, 成美出版, 日本, 2009.)

그 영향을 받아 여러 지역에서 도자기를 생산했고, 이후 일본 도자의 플로럴 패턴은 [표4]에서와 같이 수국, 동백(Camellia), 벚꽃, 하이비스커스 부용(芙蓉) 등 한국, 중국 등과는 다른 유형들이 등장되고 되고 있다.

- 베트남의 조형표상

베트남의 청화도자는 11-13세기의 브라운 패턴 베트남 도자를 시작으로 Ly 왕조와 Tran 왕조(1225-1400년)로부터 받아들였다. 특히 Ly 왕조 시대는 베트남의 문예 부흥기로 일컬어지는 시기로 베트남의 정체성이 단순함과 서정적인 장식으로 나타난 시기이다.

인물, 동물들과 함께 화훼문을 포함하는 식물의 테마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토착문화가 된다.

아울러, 연꽃, 레몬, 에프리카트(apricot) 장식패턴은

행운과 만족, 장수를 상징하는 전통적이며 계승 (inheritance)의 양식으로 취급 되었다.

내용 시대	유형별 형태	시대, 패턴장식 및 특성
15세기 19세기	 ①	15세기 모란+새+대나무+구름 (몸통과 목)
	 ②	15-16세기 달모양의 병 (glass) 대나무+모란 구름입구, 모란+구름
	 ③	
	 ④	14-15세기 연꽃
	 ⑤	15세기 모란+연잎 double rum 주둥이/항아리
	 ⑥	15-16세기 모란 15-16세기 모란+연꽃잎 (Brown+Green +Blue)
	 ⑦	
	 ⑧	15세기 연꽃과 구관 조 16세기 연꽃 (Blue+Green +Brown)
	 ⑨	
	 ⑩	⑩ 16세기 연꽃 오리 한쌍+나비+연못
	 ⑪	⑪ 16세기 국화 주전자 12 15-16세기 연화+모란 이음부분 형상처리
	 ⑫	
	 ⑬	⑬ 15-16세기 모란 (장식용 tips) 14 15-16세기 뚜껑부 꽃모양의 부조 + 연꽃
	 ⑭	
	 ⑮	⑮ 19세기 초 새와 매화 뚜껑부는 한쌍의 Lion-dog 16 15-16세기 꽃자루 모양 stern up 국화
	 ⑯	

[표 5] 베트남 도자의 플로럴 패턴

(출처 : John Stevenson and John guy, Vietnamese Ceramics art media resources, 1997)

[표5]에서와 같이 베트남의 경우도 중국과 같이 도교(taoism)와 불교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나 중국과는 또 다른 독자적 도자양식을 지니고 있다. 이는 베트남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혼이 되는 강한 자부심에서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석류는 행운을, 시트론(buddha's-hand citron)은 기원을, 파파야는 풍요, 파인애플은 명성, 사과는 부유함을 기원하는 수천년 역사의 불교 수도원에서 유래된 기원 사상에 기인한다. 특히, 연꽃은 모란, 멕시코 원산 율하향 장미 (tuberoze), 매화, 뽕나무 등과 함께 주로 등장되는 패턴이 된다. 도자의 형태는 물 항아리와 물방울모양의 단지 및 과일 받침대, 장식용 타일 등이 있다.

3-3. 유럽도자작품분석

내용 시대	유형별 내용	시대, 패턴장식
18세기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이탈리	 ①	①,② 18세기 혼합형 시누아즈리
	 ②	
	 ③	③,④ 18세기 채화기법도자유형
	 ④	
	 ⑤	
	 ⑦	⑤,⑥ 13세기 채화기법 도자유형
	 ⑥	
	 ⑧	⑦ 아 르 데 코 양 식 의 포 트 (pot) ④,⑮,⑯,⑰ 16-18세기 청화타일 유형 - 혼합형
	 ⑨	
	 ⑩	
	 ⑪	
	 ⑫	⑫ 18세기 혼합형 테이블 웨어 (table ware)

[표 6] 유럽도자의 플로럴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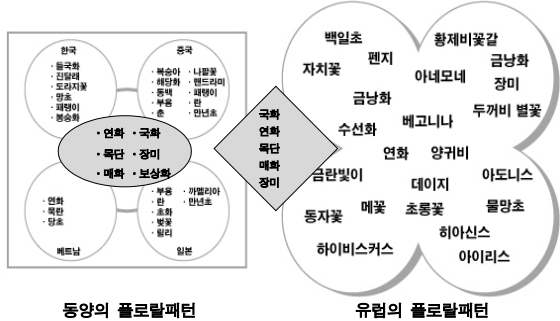
(출처 : Ugo Gobbi, Naturalistic Floral Decoration on XVIII Century ceramic, Editional, Milo, Italy, 1996, 김연화, 형이상학적 조형성으로서의 찻주전자의 조형이념과 형식,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0.)

17세기 시누아즈리는 바로크(Baroque)라는 지배적인 양식으로 동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18세기가 다가 오면서 점점 바로크 양식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 모두에서 시누아즈리는 새로운 취향,

즉 로코코(Rococo)를 탄생시키는데 있어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17세기중반에 이르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과 덴마크, 이태리 등을 포함하는 재현된 조형 양식으로서의 시누아즈리풍의 예술 체험의 근본구조는 이것이 지난 조형특성 및 미적형식으로 동양적인 사유와 정서 및 정신적 조형 창조 활동에 기인하며 재구성 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바로크적인 것과 중국방식이 동시에 적용된 청화백자 양식의 변종인 푸른 페르시아(blue persian)라고 불리는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 내었다. 프랑스의 시누아즈리는 루앙, 벤센, 세브르를 중심으로 18세기 초에 황금기를 맞이하였고 바로크적인 양식과 모티프에 의해 다색류의 도자기가 등장되었다. 독일의 마이센(Meissen) 도자기는 인도풍 꽃이라고 불리는 플로럴 패턴을 사용하였다.

유럽 각국의 도자에 나타난 플로럴 패턴의 특징들은, 18세기 중엽 시누아즈리 영향에 힘입어 국화, 목단, 장미, 대나무 등과 새, 벌레 등이 부제로 등장되고, 18세기 후반은 플로럴과 당초문, 그리고 리본으로 묶은 부케 형상이 등장되며, 19세기에 이르러 미학적인 동서양의 혼합된 조형으로 나타났다.



[그림 4] 국내외 도자의 주요 Floral 패턴분포도
(타원부분과 다이아몬드형의 부분은 공통적 특성으로 표현된 플로럴 패턴임)

아울러[그림4]와 같이 데이지, 금낭화, 자스민, 매꽃, 물망초, 과꽃(china aster), 초롱꽃(harabell), 동자꽃(campion), 지치꽃, 백일초, 참제비 꼬깔, 아도니스, 양귀비 등 다양한 패턴이 등장 된다. 유럽이 원산인 크리스마스-로즈나 갈릭-로즈, 캐비지-로즈는 애정과 행복을 상징하며 에스터는 추억과 사랑, 아이리스는 우아함과 기쁜 소식, 거베라는 신비함과 경이를 의미 하게 됨으로 플로럴 패턴이 확산하는 사유를 지닌다. 베고니아의 경우에도 중국과 인도가 원산지지만 정중과 친절을 상징하는 패턴의 유형에 분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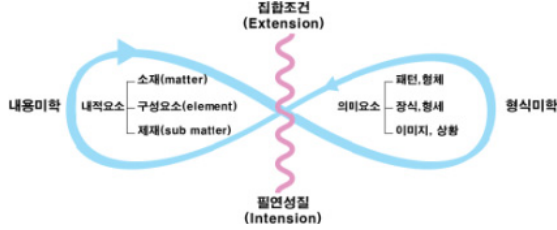
특히, 도자의 마올리카 기법은 석유를 바르고 그 위에 코발트 장식을 한 뒤, 구운 다음 벗겨 냄으로써 백화처럼 보이는 효과를 얻는 방법으로 스페인 섬 마올리카(Majolica)에서 유래되며, 프랑스 파이앙스는 1512년부터 프랑스 리옹에서 시작된 연질자기의 생산에 힘입어 손잡이가 달린 물병류 장식용 꽃병등이 14세기-15세기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한다. 독일의 경우 1910년 마이센이 흰색 자기 제작에 성공함으로써 본격적인 유럽의 도자산업이 확산되기에 이른다.

국명 조형	한국	중국	베트남	일본	유럽
플로럴패턴의 형식 (조형 형식/특성)	실용성 실연성 사의성 관조	팔괘배치 만개형 개화형 편화형 사실형	토착형 만개형 사실형	묘사형 단순형 공간구성형	시누아즈리 일본풍영향 장식재현
플로럴패턴의 이념 (조형 개념)	실용적 추상적 암시적 자연현상적	실용적 공리적 도가적정서 zen부디즘 영향	독자적 전통적 도가적 계승적 내재적	회화적 표현적 추상적 가공적 형식적	사실적 전원적 직유적 추상적 미감적
플로럴패턴의 이념 (사상/종교)	민간신앙 도교불교 유교 종교사상	도교 불교 유교	도교 불교	선교 불교	기독교 카톨릭
플로럴패턴의 이념 (상징)	정갈,담백, 정지,무상, 청정,행운, 군자,벽사, 기원,기복	부귀영화, 고귀,행복, 건강, 길리 (吉利), 심원, 장중	부귀영화, 행운,장수, 기원,기복, 명예,건강, 불사	기복, 상서, 장수 명예 길상	평화,사랑, 안녕,행운, 명예,장식

[표 7] 국내외 플로럴패턴이 지닌 외연으로서의 조형 형식과 내포로서의 조형이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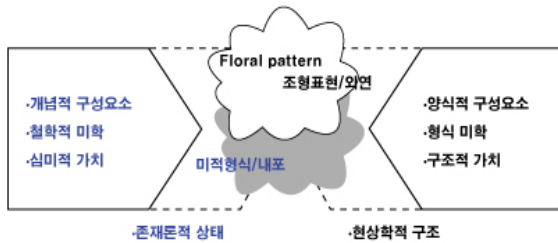
3-4. 표상으로서의 외연과 내포

조형표상은 개념의 이해와 의미의 해석에 관한 심리적 절차와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표현의 결과이며 개념과 목적에 대한 조형요소들이 형식적, 의미론적, 추상적 속성으로 결합된 통합체 (syntagm)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작가의 감성이 통일적 직관의 형태로 산출된 외연 (denotation)과 내포(connotation)는 통일적인 형식 법칙을 가진 작품에 나타난 개념의 조건이 반영된 묘사로서, 이는 내적 표상이 지각되는 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개념의 의미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의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집합의 조건이며, 포괄하는 대상들을 표시하거나 하나의 개념을 철저히 하게 하는데 목표를 두는 정의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 즉, 외연이 된다.



[그림 5] 플로럴 패턴의 집합조건과 필연성질

아울러 위와같은 개념이 적용되는 범위란 내포, 함축이 되며 이것은 [표7]에서처럼 조형형식, 특성, 종교, 사상등과같은 속성으로 외연에 속하는 여러사물이 공통으로 지니는 필연적 성질의 형식을 뜻한다. 따라서 플로럴 패턴의 외연과 내포의 구조는 [그림5],[그림6]에서처럼 형식미학과 내용미학으로구성되는 집합조건과 필연성질의 교차적, 대응적관계로 나타나게됨을 알 수 있다.



[그림 6] 플로럴 패턴의 외연과 내포

4. 결론

도자작품에 나타난 플로럴 형식의 표현은 주제, 패턴, 이미지와같은 시각적, 현상학적 구성요소인 장식미학의 범주에 속한다. 즉, 도자라고 하는 조형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의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집합의 조건에 대한 외적요소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건의 내용미학에 해당되는 내적요소는 일련의 정신적, 심상적인 요소로서 주제와 연관되는 콘텐츠(contents)로서의 동인(motif)과 상호 조응적인 관계분석에 의한 미적인 의식과 체험의 산물임을 인지하였다.

즉, 양자의 관계는 집합조건과 필연성질에 대한 양태, 변이, 변용에 의한 미적 체험에서 체득하게 한다. 향후 실체와 가정의 조형감각이 규명되는 통섭적이며 다학제적인 작품혼(esprit)의 속성들이 지닌 변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과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축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연구의 주요 발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징적 개념을 지닌 플로럴 패턴의 미적 형식은 형식 미학과 내용 미학의 조건과 속성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독자적인 회화적 주제와 조형요소를 지니고 있으므로 차별성이 명확히 구분됨을 알 수 있다.

둘째, 플로럴 패턴이 지닌 조형성과 형태구조는 동양과 유럽이 각각의 양식에 기인되는 조형표상으로 재구성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그 형상성에 대한 규범은 장식적인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한 미적범주에 내포되어 있다.

셋째, 플로럴 패턴이 지니고 있는 조형표상의 의미는 생활양식, 태도, 조형사고 등이 고유적 예술혼으로 내재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이념적 상징적 형식과 패턴으로 묘사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 강경희, 국립중앙박물관, 예멘, 2007, p.104, p.117.
- 김연화, 형이상학적 조형성으로서의 찻주전자의 조형이념과 형식,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0, p.123.
- 이용옥, 중국명,청시대 청화자기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p.141-143,pp. 145-7, p.201.
- 엄익규, 조선조 도자문양의회화적 특성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2. pp.97-101.
- 황윤, 김준성, 중국청화자기, 생각의 나무, 2010, p.222.
- 한석우, 강승기, 예술문화체화 디자인 현현을 매 화(문)의 상징성과 조형적 표상, 한국화예디자인학회 논문집 22권, 2010, pp. 361.
- John Stevenson and John guy, Vietnamese Ceramics art media resources, 1997, p.295, 297, 299, 307, 313, 326, 327, 332, 334, 346, 365, 370, 389.
- Ugo Gobbi, Naturalistic Floral Decoration on X VIII Century ceramic, Editional, Milo, Italy, 1996, p. 67, 71,
- 長谷部樂彌, 2006, 世界のやぎもの史 pp.88.
- Seigensha 陶磁文化館, 古伊万里入門, 青幻舎, 2007, p. 17, 25, 38, 84, 107, 185,
- 失部浪明 日本のやぎもの史, 美術出版社, 2007, p.95, 198.
- やぎもの事典, 成美出版, 2009, p.16,19, 46, 127.
- だなが ごうじるう, がんだ あきお, 陶瓷器染付文様事典, 栢書房, 1989, p.47-54.
- 失部浪明 日本のやぎもの史, 美術出版社, 2007, p.95, 198.
- やぎもの事典, 成美出版, 日本, 2009, p.16,19, 46, 127.